

우성타이어(주)

기업설명회 개최

지난 7월 27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기업설명회가 개최됐다. 100여명의 일반투자가와 기관투자가 그리고 언론기관 및 증권분석가들이 참가한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법정관리 조기 종결에 따른 우리회사의 경영목표와 경상이익 흑자 조기 실현 및 2부 종목의 전환을 위한 경영전략 등을 설명했다.

우리회사는 10년만에 손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완전 경영 정상화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96년 1월 부도로 3년간 법정관리 중이던 우리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 인가후 7개월만에 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법정 관리를 종결하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증권 및 투신사 등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정리담보권을 비롯해 정리채권 및 공익채권 등 차입금 상환 완료와 올 상반기 43억원의 경상이익 실현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이규상 사장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자본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나 지난 6월 11일부로 법정관리 종결과 동시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완전 해소됐다”고 밝히고, “내년 주총후에는 증권거래소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2부 종목으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노와 사는 같이 태어나서 같은 목표로 함께 가는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사는 경영정상화에 대하여 결림돌인 양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는 투쟁의 대상도 아니고, 결림돌도 아닌, 경영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노사동근(勞使同根)”임을 강조했다.

내부 품질검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 까지 4일간에 걸쳐 '99년 2차 정기 내부품질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감사는 경영자 품질방침에 따른 부서별 실천사항 및 실적, 부서별 업무 분장 및 책임과 권한, 사규 및 품질 매뉴얼 신본 교체 유무 및 변경사항 숙지여부, 문서 및 DATA 관리, 교육 훈련 관련 사항, 전 내부품질감사시 발생한 부적합 사항의 조치 및 재발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착안점을 두었다. 이번 사후 감사에 대한 취지가 ISO 9001 유지보다도 현 업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 개선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그 취지를 살려 더욱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간 작업장내의 사고예방 및 작업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표어, 포스터를 접수했다.

이번 표어와 공모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내용 ▶ 산업안전보건은 인간존중의 숭고한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여 개인의 안전은 가정과 기업 및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내용 ▶ 밝고 건강하고 무재해 일터 조성은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내용 ▶ 산업재해나 직업병 예방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합축된 작품.

또한, 포스터부문 최우수상에는 상금 20만원과, 표어부문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1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어 어느 공모전 못지 않은 규모이다.

한편, 280명이 388점의 작품을 제출하여 안전환경과의 1차 심사후 안전보건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기본준수로 사전예방만이 무재해의 길(제조2과 조재국)>과 표어부문 최우수상 <안전수칙 너나없다 다시한번 확인점검(제조1과 박기철)>에게로 돌아갔다. 많은 사원들의 행사 참여로 안전보건의식 향상은 물론, 우수작품에 대해 현장개시로 사고예방 효과와 우수작품에 대해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되는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회사 이미지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건강검진 실시

지난 9월 6일에서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1999년 입사자를 제외한 1105명의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됐다. 성인병을 비롯한 모든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과 더불어 만 40세(1959년생) 사원들에 대해서는 혈액종합검진도 시행하였다.

'99년 체육대회 개최

'99 우성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월 7일 양산대학에서 본사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21세기 초우량 기업 실현의 기틀을 다지고자 그 동안 땀흘려 일하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 임직원이 정파 흥을 함께 나누며 노사간의 화합과 믿음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될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등 정규게임 이외에 부부 발 묶고 달리기, 떡 먹고 달리기, 타이어 굴리기 등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우성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목의 자리가 될 것이며, 우성타이어인의 기상을 마음껏 내뿜는 축제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행운권 추첨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타이어 (주)

Y2K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Y2K 대응 문제가 기업의 직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가 Y2K 대응 우수 기업으로 평가됐다. 8월 24일 골드만 삭스는 [아시아 Y2K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Y2K 대응 태세를 조사한 결과, 한미은행과 케세이퍼시픽, 홍콩의 HSBC 홀딩, 싱가포르 항공, 타이완의 TSMC가 대응이 가장 철저한 기업으로 평가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 포함된 우리 나라 14개 기업의 Y2K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한국 타이어를 비롯하여 LG화학과 국민은행, 포항제철, 한국통신 SK텔레콤 등도 종합 평가에서 한미은행과 같은 '아주 우수하다(very good)'고 평가했다.

이미 우리 회사는 지난 해 11월 한국IBM, 현대정보기술의 컨소시엄과 함께 Y2K 프로젝트를 시작, 지난 6월 30일까지 총 7개월 동안 Y2K 대응 작업을 완료했다.

추진 부문으로는 IT, NON-IT, 비상계획, Supply-chain 등 4개 부문으로 작업을 추진했다. IT 부문은 전산장비 및 응용 프로그램의 Y2K 대응이며 NON-IT 부문은 생산 관련 장비 및 환경 설비, R&D 장비의 Y2K 대응을 말한다. 또한 비상계획은 Y2K 문제 발생에 대비한 우리 회사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Supply-Chain은 우리 회사와 관련된 공급업체, 구매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Y2K 대응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Y2K 대상은 IT 부문이 8천721개, NON-IT 부문이 4천960개, 비상계획 부문이 177개 프로세스, Supply-Chain 부문이 316개 업체 등 총 1만4천174개를 대상으로 Y2K 대응 작업을 실시했다.

한국타이어 중국 공장 중국정부로부터 경제 발전 공로 인정

가홍과 강소, 두 중국 공장에 겹경사가 생겼다. 두 동사장 모두 중국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우의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의상은 중국 사회 발전과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환경 경영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외국 국적의 전문가나 경제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먼저 지난 9월 17일 가홍공장 박기현 동사장이 절강성으로부터 서호우의상(West Lake Awards)을 받았다.

서호우의상은 절강성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들을 가홍시 외사관공실의 추천과 절강성 외사관공실 비준을 거쳐 절강성 성장 최종 심사로 수상자가 확정했다. 가홍 절강성 가홍공장에서 힘차게 생산을 시작한 중국 성(省) 정부로부터 지역 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서호우의상은 절강성 왕영명(王迎明) 부성장과 주옥근 부비서장, 재무외사관공실 주임 등 성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절강성 항주 화가산장에서 거행된 수상식에서 총 26명이 이 서호우의상을 받았으며 한국인으로는 박기현 동사장과 영파 LG화학의 임성담 총경리 2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박기현 동사장은 "한국타이어의 Global Big 5 진입을 위해 중국 공장에서의 사명을 다할 것은 물론 가홍시 지역 발전과 나아가 중국에서 한국타이어의 입지를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강소공장 심재웅 동사장도 중국 정부로부터 우의상을 수상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 경축 행사 때 시상식이 거행돼 더욱 뜻깊은 수상이 되었다.

우의상은 중국 정부에서 '91년에 제정,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 건설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처음에는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던

것이 '98년에는 50명까지 확대되었고, 올해에는 26개국 100여명이 수상자로 확정된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중국 정부 최고의 영예상이다. 이날 수상식에는 중국외국전문가국 영도자 외 강춘운(姜春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중 합자로 설립된 강소공장은 '98년 준공한 이래 인근 학교에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는 등 양국간의 경제 발전과 우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산 245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강소공장 또한 전 사원이 합심하여 더욱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리라 기대한다.

자발적 협약으로 환경 경영 본격화

대전공장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조인식을 7월 28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조충환 사장과 17개 업체 대표 및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이 거행된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우리 회사 외 28개 업체가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협약의 내용은 우리 회사와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범 지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 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공장은 환경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100억원의 설비 투자로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손실 요인의 최소화 및 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7천300톤의 에너지 절감으로 연간 14억 원의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한편 '97년 에너지 원단위(1,987Mcal) 대비 15%를 절감하여, 1,619Mcal/톤으로 개선하고, 탄산가스 배출량을 4만4천500톤 감축시킴으로써 기후 변화 협약 발효 등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금호산업(주) 타이어 사업부

신형인 사장, '99남녀 고용 평등의 달, 국민훈장 수훈

산업현장에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99 남녀고용 평등의 달 유공자 포상에서 우리 회사 신형인 사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였다.

10월 8일 서울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직장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건전한 생활인으로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서는 봉사와 선행에 앞장섬으로써 공·사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는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거쳐 고용현장에서 남녀차별적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남녀평등의식개선과 사회적·제도적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의 공적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신형인 사장은 미래에는 여성 인력 활용도 차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직장내에서 여성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임직원 부인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여성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접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Run-Flat 타이어 KT마크 획득

공기없이도 주행 가능한 Run-Flat 타이어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산 신기술 인정제도에서 KT마크(Excellent Korean Technology)를 획득하고 9월 21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KT 마크는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이나 제품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제품의 신뢰성 제

고와 시장진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존 또는 유사제품보다 기술적 독창성, 자립도, 과급효과 등이 우수하고 시장진출 및 수입대체효과 등 경제성이 뛰어나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있어서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제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을 제기로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홍보물에는 KT 마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제품의 기술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매력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부 지원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풍자 부여받게 되었으며, 정부, 지방단체 등에 제품의 우선 구매권 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획득한 바 있는 한국산업 우수디자인(Good Design 마크)과 더불어 KT마크는 언론에 홍보하고 제품에 부착하며, 판매망에 광고하여 금호 제품인지도 향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SOLUS '브랜드 파워대상' 수상

돌고래 심벌을 활용하여 광고되고 있는 '솔루스'가 '99 브랜드 파워대상'에서 타이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일보에서 주최한 이번 조사는 ARS를 통해 소비자에게 호감가는 브랜드를 복수선정, 그 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솔루스'가 불과 2년만에 우리 회사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돌고래는 부드럽고 역동적이며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유영하는 돌고래의 감성적 이미지가 솔루스의 부드러운 주행, 안락한 이미지로 이어져 소비자의 머리에 자연스럽게 각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솔루스가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와 함께한 여러 차례의 이벤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깜작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99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산업자원부 후원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한 품질분임조 경진 대회에서 광주와 신바람분임조(곡성 공장 설비부)와 상록수A 분임조(광주공장 제조1부 2과)가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였다.

'99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거행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국 기업 150개 분임조가 출전하였으며 열띤 각축전을 벌였다. 우리회사에서는 설비부 설비2과 신바람분임조(개선사례부문, 분임장 이창남)와 광주공장 제조1부2과 상록수A분임조(운영사례부문, 분임장 변성연)가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곡성공장 제조2-3과 백두산 분임조(개선사례부문, 분임장 김덕수), 곡성공장 제조1부 3과 노고자리분임조(운영사례부문, 분임장 안홍주), 광주공장 제조2부 6과 태평양A분임조(현장 개선사례부문, 분임장 이민수)와 광주공장 원동과 동맥분임조 수상자들은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곡성공장 '99 품질 경쟁력 우수 50대 기업에 선정

품질혁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국내 50대 기업을 발굴, 모델화하여 후발 기업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에 우리회사 곡성공장이 선정되었다.

국립기술 품질원에서 선정하는 '99년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은 미국의 말콤볼드리지상과 유사한 제도로 '97년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 기업 지정 제도로 발족하여, '98년도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 경쟁력 50대 기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올해 다시 선정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심사는 전략 및 관리시스템, 품질시스템, 소집단·자주개선 활동, 제품개발, 기술개발 능력, CS(고객만족), 경영실적 7개부문을 평가하는데, 우리회사는 IMF로 인한 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품질혁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시스템 향상, 고객만족 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